

## 본풀이의 ‘경쟁 화소’와 ‘일월조정 화소’에 나타난 자원에 대한 인식과 분배 방식 연구 - <천지왕본풀이>, <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를 중심으로 -

전 주 희\*

### 차 례

- |                                       |  |
|---------------------------------------|--|
| 1. 서론                                 | 3) <마누라본풀이>; 무엇을 가진<br>자가 우위에 설 수 있는가? |
| 2. 경쟁 화소를 통해 본 자원에 대한<br>인식과 분배의 양상   | 3. 일월조정 화소를 통해 본 공공<br>자원의 문제 해결 양상    |
| 1) <천지왕본풀이>; 누가 더 좋은<br>것을 차지할 수 있는가? | 4. 결론                                  |
| 2) <할망본풀이>; 누가 그것을 가<br>져야 하는가?       |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제주도의 본풀이인 <천지왕본풀이>, <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에 나타나는 ‘경쟁 화소’와 ‘일월조정 화소’가 ‘자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 논의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

한 것이다. 이들 이야기에서 주체들의 경쟁은 특정 신직(神職)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자기 신직의 우위를 잡하기 위하여 일어난다. 이는 각각 인간이 가지고자 하는 어떤 것, 그리고 가진 것을 바탕으로 남보다 우위에 서려는 상황을 반영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자원 획득과 자원 분배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인간 사회의 다양한 상황들을 은유하기도 한다. 2장 1절에서는 <천지왕본풀이>를 대상으로, ‘누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이승이 저승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를 찾고, 이승과 저승의 특성이 경쟁 주체의 행위에 연결되고 있음을 밝힌다. 2장 2절의 <할망본풀이>에서는 ‘누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자원의 가치보다는 소유자의 자격 요건에 집중하는 이야기이므로 <천지왕본풀이>에서 문제되었던 자원 분배의 윤리적 부당성을 해결한다. 그러나 <할망본풀이>는 정당하게 자원이 분배되더라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균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존과 상생의 필요를 강조한다. 2장 3절의 <마누라본풀이>에서는 ‘무엇을 가진 자가 우위에 설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서로 반대되는 직능을 가진 생불할망과 대별상의 대립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자원 소유자 간의 다툼을 비유하며, 이들의 화해 과정은 갈등의 해소를 위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한편, <천지왕본풀이>의 일월조정 화소는 해와 달의 과잉 상태를 다루는데, 해와 달은 획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원의 경쟁성과 배제성을 벗어나는 ‘공공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공공 자원은 특정한 소유자가 없지만 그 혜택을 받는 모두가 주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상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다. 본풀이의 일월조정 화소는 공공 자원의 과소 혹은 과잉 상태에서 초래되는 자연환경의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그것은 인류 공존에 필요한 균형을 시사한다.

주제어 : 제주도 본풀이, <천지왕본풀이>, <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 경쟁 화소, 일월조정 화소, 자원, 자원 분배, 공공 자원, 자연환경 문제, 공존, 균형

## 1. 서론

우리는 신화를 비롯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인간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비유적으로 재현하고 있음을 안다. 옛이야기들 중에서 그 비유의 의미가 비교적 명료하게 이해되는 경우, 우리는 전형적인 교훈을 전달하는 메시지들에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다. 반면에, 특히 신화가 그러한데, 비현실적이고 초월적인 이야기에서 그것이 비유하는 것과 상징적 메시지를 파악하기 힘들 경우,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미처 생각할 수 없다. 어느 경우이든 간에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옛이야기에 대한 존재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그것을 향유할 기회를 놓치게 한다.

하지만 이야기가 내포한, 당연해 보이는 교훈은 시대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비현실적이고 상징적인 사건들은 그와 비슷하거나 전혀 다른 모티프가 나타나는 이야기들의 체계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필자는 후자의 경우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이야기를 어떤 체계와 맥락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 꽤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풀이는 그동안 고유한 자신의 제의적 맥락,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 및 신화라는 장르적 속성들 안에서 해석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천지왕본풀이>의 경우, 대별왕과 소별왕의 인세 차지 경쟁 화소와 일월조정 화소는 '창세 신화'라는 장르 안에서 선(善)과 악(惡), 우주 창조와 질서 확립과 같은 가치관 및 세계관을 중심으로 다루어진 경우가 많았다.<sup>1)</sup>

경쟁 화소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연구들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박종성은 인세 차지 경쟁 화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소인 ‘잠’의 상징적 의미를 다루었다. 신화에서 두 인물 중 한 명은 결국 내기 중에 잠을 자게 됨으로써 인세를 빼앗기게 되는데, 박종성은 이러한 ‘잠’이 창조의 원리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의 주체를 뜻하며, 반대로 상대가 잠을 자는 동안 속임수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인세를 차지하는 인물은 창조의 원리를 인식하는 주체라고 설명하였다. 이주영은 이러한 관점에서 더 나아가 한국의 창세 신화와 몽골, 유럽의 어스다이버(earth-diver) 유형의 신화를 비교하였다. 그는 인세 차지 경쟁 화소가 곧 경쟁자들 간에 우위권 다툼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러한 위계 관계는 ‘잠’과 ‘행위’로 구체화되면서, 각각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실현’이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음을 밝히었다.

특히 강진욱<sup>2)</sup>은 이러한 해석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이 쌍둥이 형제의 ‘수수께끼 내기’와 ‘꽃 피우기 내기’ 서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는데, 수수께끼 내기에서 식물의 일반적인 성장과 섭리를 말하는 대별왕에게 소별왕은 계속 예외적인 현상, 즉 ‘다름’을 거론하며 판세를 뒤집는다. 이는 소별왕이 장자(長子) 대별왕이 생래적으로 가진 기득권에 의문을 제

1) 강소전,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적 의미』, 『탐라문화』 32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251-282쪽.

박종성, 『중,동부 유럽과 한국의 창세신화 그리고 변주』, 『비교민속학』 제35집, 비교민속학회, 2008, 541-572쪽.

신연우, 『한국 창세신화의 ‘숙이기’ 모티프를 통한 트리스터의 이해』, 『고전문학연구』 44권, 한국고전문학회, 2013, 102-129쪽.

신연우, 『제주도 초감제 신화와 뿔의 문제』, 『한국무속학』 제29집, 한국무속학회, 2014, 143-171쪽.

신연우, 『제주도 일반본풀이에 보이는 악(惡)에의 대응과 그 의의』, 『실천민속학연구』 제26호, 실천민속학연구, 2015, 69-94쪽.

이주영, 『어스다이버(earth-diver) 유형을 통해 본 창세신화 인세차지 경쟁 화소의 신화적 의미』, 『우리문학연구』 39, 우리문화회, 2013, 143-174쪽.

2) 강진욱, 『‘꽃 피우기 내기’로 구현되는 창세신화의 신화적 원리와 세계관: <천지왕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59권, 한국구비문화회, 2018, 5-36쪽.

기하고 도전하는 행위이며, 자연과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개체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반영하는 것과 같다. 그 '다름'은 '욕망'이기도 하며, 인간들이 지닌 다양한 욕망들이 이승에서의 삶을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별왕이 대별왕의 번성꽃을 자기 것으로 '바꿔치기'함으로써 욕망을 실현하는 것은 생명력의 근원성을 '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유한성을 삶과 죽음, 재생이라는 우주적 순환의 고리 안에 위치시키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그동안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경쟁 화소에서 소별왕의 속임수를 단순하게 악(惡)과 연결지어 논의했던 기존의 구도에서 벗어나, 그것을 신화와 인간 삶의 철학적 문제로 유연하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그의 연구는 상당히 흥미롭다.

필자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되, 경쟁 화소를 창세 신화 담론에서 일단 분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세 차지 경쟁 화소가 그동안 창세 신화라는 맥락 안에서 태초의 질서나 세계관 및 자연관, 그리고 선과 악의 기원을 나타내는 이야기로서 의의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천지왕본풀이>의 경쟁 화소는 <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에도 비슷한 양태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제주도의 무속 신앙 체계 안에서, 이렇게 동일한 화소가 각각의 본풀이에 나타날 경우, 이것들은 그것들이 놓인 맥락 안에서 적절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전 연구에서 제주도 본풀이가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로서 '형평성'(fairness)을 지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sup>3)</sup> 그렇다면 '형평성'이 위협받는 자원 획득과 분배의

3) 전주희, 『제주도 본풀이의 세계관과 에토스 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필자는 이 연구에서 본풀이의 에토스로서, 즉 공동체의 윤리적, 미적 인식 태도가 '형평성'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재물, 수명, 자손 등과 같은 복(福)을 균형있게 운용하고, 삶에서 저지른 잘못을 심판하는 '공정한'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두 번째, 인간이 올리는 제의와 그에 따른 신의 보답으로서 행운이 서로 증여되는 '호혜적' 증여 관계로 나타나고, 세 번째, 부족하거나 없는 자를 자신들의 물질과 공감을 통해 돌보고 위로하는 '나눔'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경쟁 상태’는 분명 이야기 속 인물들에게도 문제적 상황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밝히는 것도 본풀이에 나타난 형평성의 의미를 심화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 가지 본풀이에 나타난 인물들의 경쟁 행위 자체와 그 양상에 집중한다. 이들은 ‘누가 무엇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가?’, ‘누가 그것을 차지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차지한 자가(누가) 우위에 서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내포하고 있다. 곧 본고는 경쟁하는 주체들, 차지하려는 대상의 성격, 경쟁의 양상과 그 결과가 내포하는 신화의 메시지를 탐구함으로써, 태초의 세계나 우주 질서와 같이 지금으로써는 닿을 수 없는 문제를 상상하기보다는 지금 이곳의 우리와 인간 사회의 모습을 해석하는 작업을 지향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바로 ‘왜 경쟁하는가?’이다. 신화에는 어떤 대상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화소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신화의 일반적인 특징은 아니다. 게다가 본풀이들 중에서도 <천지왕본풀이>, <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처럼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경쟁 구도를 보이는 본풀이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경쟁’은 소유하려는 대상이 소유하려는 주체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들은 많은 데 비해 일자리가 많지 않을 때 기업은 사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변별 기준을 높인다. 그에 따라 청년들은 구직 시장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경력을 높이려고 서로 경쟁한다. 흥미롭게도 본고에서 다룬 주인공들의 경쟁도 ‘신직’(神職)을 둘러싸고 일어난다. 어느 한 세계, 한 영역을 다스릴 위엄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 주체들은 자신이 경쟁자보다 적임자임을 증명하거나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주어지는 신직에 따라 경쟁 주체들과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두 명

의 '남성'들이 '두 개'의 신직을 놓고 그중에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경쟁한다. <할망본풀이>에서는 두 명의 '여성'들이 '하나'의 신직을 두고 '책임자'를 가린다. <마누라본풀이>에서는 두 명의 '남성과 여성'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자신들의 직위와 힘의 '우위'를 따진다. 이러한 양상은 이 본풀이들이 단지 신직의 권위와 인물들의 초인적인 능력을 짝지음으로써 신화적 인물의 권능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님을 시사한다. 실상 이들은 차지하고 싶은 것, 욕망하는 대상을 위해 경쟁하며, 이것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양상들을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삶을 꾸려나가고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 '자원'의 확보가 중요했던 인류의 오랜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본풀이들을 연구하려고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고에서 말하는 '자원'의 개념을 밝혀둘 필요가 있겠다. 자원의 사전적 개념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로서의 광물, 산림, 수산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며, 다른 하나는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노동력이나 기술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이러한 개념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자원의 의미는 그것이 '인간 삶에 있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번영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이다. '원료'는 말 그대로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는데, 인류사에 있어 자연 자원의 획득과 분배는 상호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노동력이나 기술 따위'는 인간의 물리적 힘이나 인지적 능력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산적 효과를 뜻한다. 이 두 번째 의미에서부터 자원의 개념이 꽤 넓어지는데, 여기에는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인지적 능력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인간이 구성한 사회나 정치의 조직도 다양한 힘이 발생하는 권력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그러므로 본풀이에서 인물들이 서로

4) '인간의 노동력과 기술'은 엄밀히 말하면 생산적 효과가 아니라 생산적 수단이다.

차지하고자 하는 ‘신직’도 어떤 ‘힘’을 가지고 인간 세계에서 유용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의 거시적 개념에 속할 수 있다. 또한 신화를 포함한 옛이야기들의 경쟁담이 지닌 서사의 특성상, 차지하려는 대상을 두고 인물들이 ‘갈등’하는 것은 자원이 지닌 최소한의 개념과 그것이 놓인 세계의 현실에서 비롯된다. 즉 그것은 ‘나에게 필요’하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나뿐이 아니다’는 상황에서 경쟁담이 성립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말하는 ‘자원’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우선 본풀이 ‘경쟁 화소’에서 주로 강조되어 나타나는 자원은 일차적으로 ‘욕망과 획득의 대상’이다. 그것은 주로 신직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인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므로 인물들은 그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갈등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본풀이의 ‘경쟁 화소’와 ‘일월조정 화소’를 바탕으로 실제 세계에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자원의 개념이다. 곧 인간 삶에 필요한 물질적·비물질적 대상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본고에서 말하는 자원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지닌다. 즉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  $\supset$  인간이 경쟁해서 차지해야 하는 것이다.

신화 속 인물들의 행위와 관계는 현실 세계의 인간의 모습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신화에서 그들의 행위와 그것으로 인한 결과는 대부분 현실

---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물리적·인지적 능력, 심지어 인간 사회의 구조나 정치 조직도 생산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생산 활동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가 이것들을 ‘생산적 효과를 일으키는 자원’이라고 명명한 것은, 한 문화에서 인간이 이루어놓은 결과로서의 모든 효과들은 대부분 다시 생산의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조직된 사회, 제도, 기관, 심지어 어떤 직책(본 논문에서는 신직)은 인간이 이루어놓은 생산의 결과이지만, 이것들은 그 사회에서 발생했던, 발생하는, 그리고 발생할 모든 일들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며, 그것의 운용은 사회 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실천을 유도하고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은 클리퍼드 기어츠가 자신의 저서 『문화의 해석』에서 제시한 문화 패턴 모델로서 ‘-에 대한 모델’(model of)과 ‘-을 위한 모델’(model for)의 개념을 통해 이해하면 쉬울 듯하다. 클리퍼드 기어츠(C.Geertz), 문옥표 옮김, 『문화의 해석』, 까치글방, 1998, 118-119쪽 참고.



적 차원을 넘어서지만, 인물들이 수행하는 행위 그 자체는 현실 세계에서 사는,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관계들 - 대상과 사람들 - 의 그물망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화는 보편적인 인간 문제들에 대한 인류의 다양한 생각과 해결 방식이 반영된 서사물이다. 때문에 신화 속 문제를 현실 세계의 것과 연결할 때에 우리는 신화가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방식인 상징과 굴절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은유와 환유와 같은 유사성과 인접성을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자원의 의미가 이러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신화가 지닌 그러한 특성들이 현실 세계의 맥락을 광범위하게 조감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풀이의 경쟁 화소와 일월조정담을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자원을 둘러싼 인간의 갈등 서사로 본다면, 앞서 제기했던 질문들은 다음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신화에서 자원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분배되는가?'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나는 인세 차지 경쟁 화소를 그 화소 자체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다른 신화들과 함께 묶어보는 작업은 새로운 해석과 일관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각 본풀이의 경쟁 구도를 '한정된 자원'을 다루기 위한 인간의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나는 일월조정 화소는 '과잉 상태의 자원'을 다루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 화소와 일월조정 화소는 언뜻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자원'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동일 선상에 있다. <천지왕본풀이>의 대별왕과 소별왕, <할망본풀이>의 맹진국 따님아기와 동해용왕 따님아기, <마누라본풀이>의 맹진국할망과 대별상의 경쟁 화소는 '무엇'을 차지하기 위한 주체들의 경쟁이지만, <천지왕본풀이>의 일월조정 화소는 그 '무엇'이 되는 '자원' 자체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짐으로써 그것을 조정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일월조정의 행위는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으로서 해와 달의 과잉 상태, 즉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지만 그 양이 필요 이상으로 넘칠 경우 인간 생존에 위협을 끼치는 상황을 극복하려는 행위와 같다.

일월조정 화소 또한 그동안 창세 신화 및 농경 문화와 관련하여 일월 숭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의례의 맥락에서 연구되었다.<sup>5)</sup> 때문에 이 화소는 주로 해와 달의 개수를 적절하게 조정한 행위 주체를 영웅이나 군주로 간주하고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야기로 인식되어 왔다. 갑자기 필요 이상으로 나타난 해와 달을 주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경쟁 세력으로 보고 강력한 군주가 물리쳤다는 해석이나 이러한 이상 기후를 신이한 인물이 조정함으로써 천문 질서를 알고 농경 국가를 지배하는 지도자의 자질을 보여준다는 해석 등은 모두 옛 부족 국가나 농경 사회와 관련하여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월조정 화소 또한 인간이 자원을 다루는 방식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라고 가정하고, 이를 경쟁 화소의 의미와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획득의 대상이 되는 자원의 성격과 경쟁의 양상을 먼저 살필 것이다. 첫째,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이승과 저승으로 비유되는 두 개의 자원을 놓고 대별왕과 소별왕이 ‘더 좋은 것’, 즉 이승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 필자는 여기에서 더 좋은 것으로 인식되는 이승을 규정하는 자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윤리적 문제를 경쟁 주체들의 행위와 관련지어 논의할 것이다. 둘째, <할망본풀이>에서는 하나의 자원, 즉 생불할망이라는 신직을 놓고 경쟁하는 여성신들을 통하여 ‘자원의 소유권’ 혹은 ‘자원 소유자의 자

5) 권태효, 『‘일월회복신화소’의 자료적 양상과 신화적 의미』, 『한국무속학』 제28집, 한국무속학회, 2014, 185-214쪽.

김현자, 『천자의 우주와 신화: 고대 중국의 태양 신앙』, 서울:민음사, 2013.

노성환, 『해와 달을 쓰는 신화의 의례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9권, 한구비문학회, 2004, 219-238쪽.

정충권, 『동아시아 일월조정신화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 14권, 한국구비문학회, 2002, 355-395쪽.

격'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천지왕본풀이>에서 제기되었던, 윤리적으로 부당하게 분배된 자원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의 맥락에서 자원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발생하는 문제를 짚고 그 의미를 '생불할망'과 '저승할망'의 신직과 관련해서 논의할 것이다. 셋째, <마누라본풀이>에서는 각기 다른 직분의 신들이 서로 힘을 겨루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자원 소유자들 간의 우위 다툼'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자원과 자원 소유자들이 자신의 목적 안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3장에서는 일월조정 화소를 소재로 하여, 아무도 차지할 수 없는 자원인 공공 자원, 즉 해와 달과 같은 우주적 질서에 놓여 있는 자원들이 문제적 상황에 놓일 경우, 인간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그것이 공동체 삶의 윤리로서 우리가 놓인 현대의 환경과 자원 문제 해결에 어떠한 화두를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 2. 경쟁 화소를 통해 본 자원에 대한 인식과 분배의 양상

### 1) <천지왕본풀이>: 누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가?

이 본풀이에서 형제인 대별왕과 소별왕은 아버지인 천지왕을 만나러 하늘에 올라갔다가 두 개씩 뜯 해와 달을 각각 하나로 조정하고 난 뒤에 이승과 저승을 각각 누가 차지할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겨루게 된다.

#### <천지왕본풀이><sup>6)</sup>

##### 1. 옥황상제 천지왕이 해와 달이 각각 두 개씩 나타나는 꿈과 그 중에

6)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제주:각, 2007, 41-46쪽(안사인 구송본) 참조.

하나씩을 먹는 꿈을 꾸고 나서 총맹부인과 천상배필을 맺으러 땅으로 내려온다.

2. 가난한 총맹부인은 천지왕을 대접하기 위하여 수명장제집에 쌀 한 되를 꾸러 가지만, 수명장제가 쌀과 모래를 섞어서 빌려준 탓에 쌀을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았다.

3. 천지왕이 밥 한 술을 들어 모래를 씹게 되자 연유를 묻고, 총맹부인은 수명장제와 그 집안 자손들의 나쁜 행동을 고발한다.

4. 천지왕이 벼락장군, 벼락사자, 올레장군, 올레사자, 화덕진군을 불러 수명장제를 징치하고 집안을 멸한다.

5. 천지왕이 총맹부인과 합궁을 한 뒤, 하늘로 돌아가면서 부인에게 아들 형제가 나오면 형과 아들을 각각 대별왕, 소별왕으로 이름지으라 명하고, 박씨 두 방울을 내어주면서 자신을 찾아올 때 이 박씨를 심어보면 알 도리가 있을 것이라 예언한다.

6. 총맹부인이 아들 형제를 낳고 대별왕, 소별왕으로 이름 짓고 사는 데, 아들이 아버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총맹부인이 박씨를 내어 주며 심어보라고 한다.

7. 대별왕, 소별왕이 박씨를 심자 가지가 옥황까지 뻗어 올라가고, 형제는 그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해 둘, 달 둘을 하나씩 활로 쏘아 범지법을 마련한다.<sup>7)</sup>

8. 대별왕, 소별왕은 서로 수수께끼 내기를 하여 이기는 자가 이승법, 지는 자가 저승법을 차지하여 마련하기로 한다.

9. 대별왕, 소별왕이 수수께끼 내기를 그만두고, 꽃피우기 시합을 하여 승패를 가르기로 하는데, 대별왕이 심은 꽃은 번성하고 소별왕이 심은 꽃은 검누울꽃이 되자, 대별왕이 잠든 틈을 타 소별왕이 자신의 꽃을 형의 꽃과 바꿔치기 한다.

10. 대별왕이 승패를 인정하고 저승법을 차지하면서 이승은 살인, 역적, 도둑, 속임수 등이 만연하겠지만, 저승법은 맑고 청량하다고 말한다.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쌍둥이 형제는 각각 이승과 저승 중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기에, 둘 중 하나는 패자가 되더라도 빈손이 되지 않

7) 이본에 따라 일월조정담은 이야기 결말에 나오기도 하는데 주로 대별왕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 나머지 하나를 차지할 수 있다. 때문에 이 경쟁에서 관건은 둘 중에서 '누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할 것인가?'이다. 즉 '산 사람들의 세상<sup>8)</sup>인 이승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가 이들 형제가 당면한 문제이다.

그러나 경쟁 주체들이 '왜 이승을 더 좋은 세상으로 인식하는가?' 대별왕과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은 이렇다 할 원인이거나 설명이 제시되지 않은 채 당연하게 그려진다. 그러나 신화를 보면서 무심하게 지나치기 쉬운 이 당연한 상식은 전승 집단의 사고에서 비롯되었거나 동시에 그들의 사고를 지배한다. 만약 저승과 이승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자원의 목록이라 생각하고, 그중에서 더 좋은 것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자. 우리는 당장 '어떤 것'이 '왜 더 좋은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에는 적절한 이유가 수반된다. 그것이 직감적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일반적으로 이승은 산 자들의 세계, 저승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알려져 있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인간 존재로서 이승에 살지, 혹은 저승에 살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로서 이승을 다스릴지(이승법을 마련할지) 혹은 저승을 다스릴지(저승법을 마련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승을 서로 차지하고자 했다면 저승법을 만들고 다스리는 것보다 이승법을 만들고 다스리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있음을 뜻한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삶의 세계가 죽음의 세계보다 활기가 있기 때문에 등과 같은 보편적인 이유를 들거나 역사적·사회적·문화적인 맥락에서 그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필자는 본풀이의 서사 안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대별왕은 저승법을 차지하면서 소별왕에게 '저승법은 맑고 청량하다<sup>9)</sup>'고 하였다.

8) 이승이 어멍국, 저승이 아방국이라고 나오는 구송본도 있다. 허남춘 외,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70쪽. 허남춘 외, 『서순실 심방 본풀이』, 제주: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58쪽.

9) “나는 저승법을 마련하마. 저승법은 맑고 청량한 법이로다.” 현용준(2007), 앞의 책, 45쪽(안사인 구송본).

그리고 이승의 세계는 이와 대조적일 것임을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설운 아시 소별왕야 이승법이랑 츠지혜여 들어사라마는 인간의 살인 역적 만흐리라. 고문도둑(도둑)만흐리라. 남즈식(男子子息) 열다섯 십오세가 됨에는 이녀 가족(家屬) 노아두고 녀의 가족 울러르기 만흐리라. 예즈식(女子息)도 열다섯 십오세가 넘어가면 이녀넌편 노아두고 녀의 남편 울러르기 만흐리라.”<sup>10)</sup>

이 구절은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대별왕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승과 저승의 공간적 특징이 그렇게 ‘정해지는데’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이 예언은 분명히 소별왕의 부정한 ‘행위’에서 비롯되고 있다. ‘소별왕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가 다스릴 세계 또한 부정할 것이며, 대별왕은 원칙대로 결과에 순순히 따랐으므로 그가 다스릴 세계도 순리대로 움직인다’라는 명제가 성립하는 것이다. 둘째, 이 구절을 포함해서 <천지왕본풀이>의 서사 전체가 이미 법칙과 질서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들 형제들은 수수께끼 내기를 할 때도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주제로 겨룬다. 일반신본풀이의 이야기가 대체로 권위있는 인물의 ‘발화’를 통해 ‘행위’를 일으키고 예언을 ‘실현’하는 구조로 흘러가는 것은 그 세계 자체가 무엇인가가 이미 정해진 세계(given world)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1)</sup> 더군다나 <천지왕본풀이>는 이승과 저승을 다스릴 ‘법’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물들의 행위와 규약, 그에 따른 결과 및 상벌의 관계가 상당히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10) 위의 책, 45쪽. 이외에 다수 이본에도 비슷한 내용들(살인, 도둑, 간통과 불륜 등)이 나타난다.

11) 필자는 본인의 박사 논문에서 일반신본풀이를 이미 ‘정해진 세계’(given world), 당신본풀이를 ‘인식된 세계’(recognized world), 그리고 조상신본풀이를 ‘확장하는 세계’(expanding world)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계의 특징을 논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희(2018), 앞의 글 참조.

사실 대별왕이 예언한 이승의 무질서와 범법들은 고급을 막론하고 인간 세상의 당연한 모습들로 보이지만, 이러한 부정한 행위들은 대부분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과 욕심에서 비롯된다.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 특히 남의 아내나 남편을 탐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망을 보여준다. 끊임없이 가지고, 더 가지려는 욕망은 '살아있는 인간'의 특성이다. 그것을 가지려는 욕심에서 사람들은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을 차지한다. 소별왕이 도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이승을 차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sup>12)</sup>

반면에 저승은 무엇을 차지하고자 힘쓰는 인간들의 세계가 아니라 (신화나 제의적 맥락을 통해 유추한다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행한 일들을 신으로부터 심판받는 세계이며, 이에 따라 안식을 얻거나 벌을 받는 세계이다. 그곳은 무엇을 얻기 위해 힘쓰고, 얻음으로써 삶을 계속 변화시켜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당한 대가에 따라 제자리로 들어서는 공간이다. 삶에 대한 욕망을 꿈꿀 수 없는 저승에서는 애초에 자원을 두고 갈등을 벌일 일이 없다. 또한 '저승법이 맑고 청량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저승을 다스리는 신은 인간들이 살아 있을 때에 행한 모든 것들을 판단하여 그에 맞는 보상과 벌을 내려야 한다. 즉 저승법은 모든 인간 행위들의 선악을

12) 강진욱이 소별왕의 도전적인 행위와 그가 다스리는 이승 세계에 관하여 언급한 다음의 말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요하다. "일상을 살아가는 일은 끝없는 욕망과의 싸움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욕망하는 것이다. 욕망하고, 욕망을 쫓아 경계를 넘기도 하는, 삶은 그러므로 규칙이나 기준만으로 영위해가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있음의 현상들은, 그러한 욕망의 다양성이 얽혀있는 인간세상은 다양한 색실과 무늬로 얼룩진 자수판(刺繡板)이다. 다양한 욕망과 다양한 추구들이 얽히면서 혼란과 혼돈을 만들기도 하는, 그러면서도 사람들-살아있는 것들은 살아있음을 원하고 그 욕망을 추구하면서 때론 경계를 넘기도 하고 때론 반성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악으로 규정되는 것-그것은 애초의 신화적 논리인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도덕적 논리인가?"

강진욱(2018), 앞의 책, 23-24쪽.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저승을 차지하는 신은 그러한 법을 세워 윤리와 정의의 편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무거운 직책을 맡아야 한다.

이에 비하여, 이승을 차지하는 신은 살아 있는 인간들을 다스리므로 그들의 생을 판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승을 차지하는 신에 비하여 윤리와 도덕의 잣대에서 자유롭다.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생명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자신의 꽃이 검누울꽃이 되자 대별왕의 번성꽃과 바꿔치기를 한 것은 이승을 차지하고픈 욕심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이승에 도덕과 윤리가 마련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법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것은 그들 '선택의 문제'이다. 이와 달리 저승에서는 대별왕도, 죽은 자들도 모두 정의와 심판을 주축으로 하는 '맑고 청량한 저승법'의 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승이 저승보다 좋은 것은 이 세계에서 산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며, 이승법을 차지하는 소별왕 또한 그러한 인간들의 선택에 대한 상이나 처벌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승과 저승이 맺는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각각의 특성이 경쟁 주체인 소별왕과 대별왕의 행위와 연결되는 지점은 흥미롭다. 필자는 이것이 <천지왕본풀이>의 경쟁 화소가 보여주는 자원에 대한 하나의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이승과 저승은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자원을 은유하며 사람들은 그것들 중에서 더 좋은 자원을 차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그러한 자원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 품귀 자원은 마땅히 그것을 차지할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은 내기의 규칙에서 보듯이 이미 이야기에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그 자격 조건을 정하고 그에 따라 소유자를 선발하는 과정이 반드시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소별왕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 소유자의 자격 조



건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과정의 정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소별왕의 부정 행위는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한 처세술이기도 하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처세술은 능력이 부족하고,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도 모종의 노력과 수단을 취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싶은 좋은 자원을 소유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별왕의 예언이 보여주듯이 소별왕이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차지하여 마련하는 이승은 그의 욕심에서 비롯된 자유 의지와 선택처럼 범죄가 들끓고 무질서하다. 산 자들의 세계에서는 다양한 욕망들이 충돌함으로써 법과 도덕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어떤 힘을 가졌을 때, 혹은 누군가가 옹호 못한 수단으로 차지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이토록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야기의 결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인 것이든 추상적인 것이든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자원들은 반드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유되어 활용되지만은 않는다. 이것 또한 세상살이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의 이치이다. 주인을 잘못 만나 제 기능을 못하는 자원들이 얼마나 많은가? 결과적으로 <천지왕본풀이>는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순리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의 세계를 무질서하게 만들어가는 인간과 권력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의 모습을 쌍둥이 형제의 경쟁을 통하여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 2) <할망본풀이>: 누가 그것을 가져야 하는가?

이 이야기에서 동해용왕 따님아기와 멩진국 따님아기는 '생불할망'이라는 신직을 놓고 경쟁한다. <천지왕본풀이>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꽃피우기 경쟁을 통하여 적임자를 가려낸다.

<할망본풀이><sup>13)</sup>

1. 동해용왕 따님아기가 아버지인 동해용궁과 어머니인 서해용궁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십오 세가 되자 한두 살 때에 아버님 수염 뜯은 죄, 어머니 가슴 쥐어뜯은 죄목으로 무죄석함에 넣어져 바다에 띄워지게 된다.

2. 동해용왕 따님아기가 인간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고 어머니에게 묻자, 어머니는 인간의 생불왕(生佛王)으로 들어서 얻어 먹으라고 일러 주지만, 생불을 주는 방법만 듣고, 해산을 시키는 법을 못 들은 채로 바다에 떨어진다.

3. 동해용왕 따님아기가 무죄석함에 갇혀 물 아래 삼 년, 물 위에 삼 년 떠돌아다니다 임박사의 눈에 띄어 구조되고, 자식 없던 임박사에게 생불을 준다.

4. 동해용왕 따님아기가 임박사 아내의 해산달이 되어도 해산을 못 시키자 임박사는 옥황상제에게 기도하며 요령과 금바탕을 올려 사정을 알린다.

5. 옥황상제가 저승 염라왕을 불러놓고 생불왕으로 들어설 만한 인간을 찾으라 하니, 염라대왕은 아버지가 석가여래, 어머니가 석가모니인 맹진국 따님아기를 추천하여 데리고 오고, 옥황상제는 맹진국 따님아기에게 생불과 해산하는 법을 알려주어 임박사에게 보낸다.

6. 맹진국 따님아기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울고 있는 동해용왕 따님아기를 만나게 되고, 서로 생불왕이라고 자처하여 다툼이 일어나니 옥황상제에게 올라가서 그의 분부를 따르기로 한다.

7. 옥황상제가 꽃피우기 시합을 제안하여 번성꽃을 피우는 자가 생불왕으로 들어서도록 결정하는데, 맹진국 따님아기의 꽃은 번성꽃이 되고, 동해용왕 따님아기가 심은 꽃은 검뉴울꽃이 되어 가니 맹진국 따님아기가 인간의 생불할망, 동해용왕 따님아기는 저승할망이 된다.

8. 동해용왕 따님아기가 심술이 나서 맹진국 따님아기의 꽃가지를 꺾으며 아이들에게 풍문조화를 주겠다고 위협하자, 맹진국 따님아기는 그녀를 달래어 저승할망에게도 인정을 걸어주겠다고 약속한다.

13) 현용준(2007), 앞의 책, 97-102쪽 참조.(안사인 구송본)

<천지왕본풀이>에서 신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남성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할망본풀이>에서 경쟁은 '여성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자에서처럼 주어진 자원들 중에 '누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지력(智力)과 꽃을 피울 수 있는 생명력을 함께 시험한 것과는 다르다. 즉 <할망본풀이>에서 생불할망이 되려는 자는 아이를 접지하고 탄생시킬 수 있는 '생명력'의 자질만을 요구받으며, 그것은 아이의 잉태와 출산을 경험할 수 있는 여성의 생득적인 능력이자 여성성 및 모성(母性) 그 자체이다. 차지할 '자원의 가치'보다는 자원 소유자의 '자격 요건'에 더 집중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소유할만한 '당위성'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할망본풀이>의 주인공으로서 경쟁 주체들이 모두 여성으로 등장하는 것은 생불할망 신직이 상징하는 여성 고유의 능력과 영역을 강조하는 의미와 맞닿아있다.

그녀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 자격 심사를 받게 되므로, <천지왕본풀이>에서 의문으로 남겨진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당위성과 윤리의 문제를 해결한다. 즉 여기에서는 동해용왕 따님아기는 생불을 주는 법만 알았을 뿐 해산시키는 법을 몰랐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았던 멍진국 따님아기에 비하여 생불할망이 될 자질이 부족한 인물이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녀는 검뉴울꽃을 피웠기 때문에 생불할망이 되지 못하고 저승할망으로 들어선다. 노력 여하에 따라 원하는 자원을 차지할 수 있었던 <천지왕본풀이>의 결말과 달리 <할망본풀이>에서 자원 소유는 합리적으로, 어쩌면 운명론적으로 자원과 자원 소유자를 연결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경쟁에서 진 동해용왕 따님아기의 행동이다. 그녀는 <천지왕본풀이>의 소별왕처럼 신직을 탐낸 나머지 승자의 화분과 자신의 화분을 바꿔치기 하는 것과 같은 비겁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 합의한 규칙에 따라 승패가 났음에도 그녀는 패자가 느끼는 상실감을 분노로 표현하였고(생불할망의 생명꽃 가지 하나를 꺾어버림),

생불할망이 접지한 자손에게 갖은 질병과 사고를 주겠다고 협박까지 한다. <천지왕본풀이>에서 부당하게 패자가 되었음에도 순순히 그 결과를 받아들인 대별왕의 태도와는 전혀 상반된다. 질 만해서 진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때를 쓰며 위협하는 저승할망을 보고 생불할망은 자신이 얻어먹을 상에 그녀도 함께 인정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법지법을 마련하여 준다.

<할망본풀이>에서는 <천지왕본풀이>에서와 달리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자가 주인이 되는’ 정의로운 양상을 보인다. 이로써 불공평하고 부당해 보였던 <천지왕본풀이>에서의 자원의 분배가 <할망본풀이>에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자원은 그것을 가질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가져야 하며, 그것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또한 자원 소유와 활용은 인간의 처세술이 아니라, 사필귀정(事必歸正) 또는 운명론으로 다루어짐으로써 자원의 소유권 및 사용권자가 지닐 자격의 당위성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자원이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 책임자에게 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그 자원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자원 획득을 둘러싼 경쟁 상황에서는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있고, 얻는 자가 있으면 잃는 자가 있다. 마찬가지로 본풀이에서도 생불할망(탄생, 삶)이 들어서자 저승할망(죽음, 질병)이 들어선다. 이렇듯 전자와 후자의 관계는 서로 상반되지만 서로 맞물려 있으며, 하나가 존재함으로써 그것과 반대되는 다른 하나가 동시에 혹은 인과적으로 발생하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자원 분배’의 측면에서 전자와 후자의 관계는 ‘필연적’이지만 ‘자원 소유’의 측면에서 이들의 관계는 ‘불평등’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도 본풀이에서 ‘형평성’은 중요한 가치로 나타나며 지향해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sup>14)</sup> <할망본풀이>에서 이러한 불평등은 다음

14) 전주희, 『제주도 본풀이의 세계관과 에토스 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된다.

동이용궁 따님애기 성식을 별딱 내명 맹진국할망 꽃을 상가지로 오독  
독 거꺼 앓으난, 인간할마님이 말을 흐뵈,  
“무사(왜) 나 꽃 상질 거끄느냐?”  
동이용궁 따님애기 말을 흐뵈,  
“인간에 생불을 주국 환생을 주영 석 들 열흘 백일(百日)이 돼민 정  
풍(驚風) 정세(驚勢) 느진듯 보든 듯 열두풍문을 주영 얻어 먹겠노라.”  
인간할망이 말을 흐뵈.  
“그리 말고 우리 조은 먹음하기 어찌흐겠느냐? 내 인간에 노력상 생  
불을 주민 저승결레(구삼승에게 바치는 아기 멜빵) 아홉자도 저인정 걸  
어주마, 결레삼승(아기업는 멜빵의 수호신) 업게삼승(업저지의 수호신)  
저인정 걸어주마. 아기어명 헌페머리(탄머리) 뜯든 적삼(땀이 뻘 적삼.  
곧 오래 입어 정든 적삼) 뜯든 치매 저인정 걸어주마.”  
“어서 결랑 그리흐자.”<sup>15)</sup>

저승할망의 협박은 자기 자리를 빼앗겼다고 느끼는 패자의 복수이다. 비록 그녀가 생불할망으로서 자질이 부족했고, 경쟁에서도 졌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녀가 가질 만한 것이 거의 없다. 그녀의 눈에 생불할망은 많이 가진 자로 보인다. 생불할망의 입장에서 저승할망의 협박이 실제로 수행된다면 생불할망은 그녀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생불할망은 저승할망에게 ‘좋은 마음을 먹자’고 달래며 함께 사는 방법을 마련한다. 즉 생불할망은 자신이 점지한 자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저승할망에게 자신이 나눌 수 있는 것을 줌으로써 공생(共生)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것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말 그대로 패자에 대한 승자의 배려를 보여줌으로써 자원을 소유하고

---

논문, 2018. 참고.

15) 현용준(2007), 앞의 책, 101-102쪽(안사인 구송본).

활용하는 통치자의 인성과 자질을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내가 적법한 절차와 조건에 맞는 자격으로 어떤 것을 차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획득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자세는 인간 사회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필요한 자세이다. 게다가 생불할망은 생명과 삶을 관할하는 신인데, 그녀는 패자의 생과 삶도 고려함으로써 자신이 관여하는 생(生)의 세계에 소외되는 구성원이 없도록 두루 돌본다. 이러한 점에서 멩진국 따님애기는 진실로 생불할망에 들어설 자격이 있는 신으로 나타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불할망’과 ‘저승할망’의 공생은 아이러니하다. 인간의 생로병사가 삶이라는 시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듯이, ‘저승할망’의 존재는 생불할망이 관장하는 아이의 접지와 탄생, 그리고 성장에서 항시 병과 죽음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천지왕본풀이>의 이승(삶)과 저승(죽음)의 대립적인 공존 구도가 <할망본풀이>에서는 인간 개체의 삶과 죽음의 대립적인 공존으로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병과 아픔, 죽음이 인간 존재의 숙명이며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면 이를 잘 다스려서 극복해내야겠다는 의지가 바로 ‘저승할망’의 자리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인식은 <마누라본풀이>에서 나타나는 생불할망과 대별상의 경쟁이야기를 통하여 이어지며, 이로써 생과 사의 관계를 다시 정의한다.

### 3) <마누라본풀이>: 무엇을 가진 자가 우위에 설 수 있는가?

이 이야기에서는 아이들의 생명과 성장을 돌보는 ‘생불할망’이 마마를 퍼뜨리고 다니는 ‘대별상’과 갈등을 벌인다. 엄연히 말해, 어떤 대상을 두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이라기보다는 각자가 가진 ‘힘의 우위’를 다투는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할망본풀이>에서 각각 생과 사, 혹은 삶과 질병으로 상징되는 여성신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그러한 경쟁 구도가 여성신과 남성신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흥미롭다. 또한 <마누라본풀이>는 결국 마마라는 질병신을

제압하는 생불할망의 이야기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자원 획득과 분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지왕본풀이>, <할망본풀이>와 연결해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본풀이다.

#### <마누라본풀이><sup>16)</sup>

1. 생불할망이 인간 세상에 자손들 생불을 주러 다닐 적에, 하루는 대별상이 자손들에게 마마를 주러 행차하는 것을 보고는 인사하며 자손들의 얼굴이 곱게 남을 수 있도록 마마를 잘 내려달라고 부탁한다.
2. 대별상은 남자의 행차길에 여자가 끼어들었다고 역정을 내며, 오히려 자손들의 얼굴이 흉해질 정도로 아이들이 마마를 심하게 앓게 한다.
3. 생불할망은 이에 괘씸한 생각이 들어, 대별상의 부인에게 유태를 주어 해산달이 다 되도록 해산을 시켜 주지 않는다.
4. 대별상의 마누라가 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 대별상이 생불할망을 찾아가 사죄하고 굴복하자 생불할망이 이리저리한 조건들을 내세운다.
5. 대별상이 생불할망의 말에 따라 두발과 복식을 차리고 피륙으로 다리를 놓아주자, 생불할망이 대별상 마누라의 허리를 쓰다듬어 해산을 시켜준다.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자원들이 각각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주인에게 분배되더라도, 자원 소유자 간의 '우위 다툼'이나 '자원 남용'에 의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은유한다. 이야기의 초반부에서 '대별상'은 '생불할망'의 활동을 무색하게 만든다. 어린 자손들이 잘 크도록 돌보는 생불할망과 달리 대별상은 아이들에게 열병을 주고 얼굴에 흉을 남기는 신이다. 그는 생불할망의 활동에 방해를 놓는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생불할망은 그것을 알기에 자손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대별상에게 먼저 인사하고 마마를 약하게 내려달라고 부탁까지 한다. 하지만 대별상

---

16) 현용준(2007), 앞의 책, 105-107쪽(안사인 구송본) 참조.

은 이를 무시하고, 아이들에게 심한 열병을 주고는 그들의 얼굴을 곰보로 만들어버린다. 이에 앙심을 품은 생불할망이 복수를 하는데, 결말부에는 대별상 또한 자식을 낳아 기르는 아버지<sup>17)</sup>로 나타남으로써 생불할망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녀의 힘을 인정하게 된다. 대별상이 비록 다른 어린이들에게 마마를 주는 신이기는 하지만, 그 또한 생불할망으로부터 자손을 접지받고 낳아 키워야 하는 부모인 것이다.

<마누라본풀이>에는 앞서 살펴본 본풀이들과 달리 동성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이성 간의 경쟁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쟁 주체와 구도 양상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천지왕본풀이>와 <할망본풀이>에서 인물들이 어떤 자원을 두고 동성 간에 경쟁을 벌이는 것은, 어떤 자원을 두고 그것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집중한 대결 양상이다. 곧 ‘좋은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반영한다. 그러나 <마누라본풀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들은 이미 자신의 자원(신직)을 하나씩 획득하였으며, 이들은 동성 간이 아니라 이성(異性) 간이다. 자원의 성격도 다르고 획득 주체의 성(性)적 자질도 다른 것으로 보아 이들의 경쟁은 자원이 지닌 가치의 차이보다는 자원 자체의 ‘개별성’<sup>18)</sup>, 즉 자원의 ‘존재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대립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은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여성과 남성의 고유한 자질(그것이 생물학적 특성이든, 문화적 특성이든)인 ‘여성성’과 ‘남성성’을 뜻하면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없는 대상을 상징한다. 즉 ‘남성’과 ‘여성’은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성으로서 함께 존재해야 할 개체를 뜻한다. 또한 이들 이성(異性)의 신들이 차지한 자원으로서의 신직도 삶과 질병 혹은 생과 사의 영역이라는 서로 다른 자질의 개별성을 뜻한다.

17) 이본에서는 대별상이 떠느리가 해산을 하지 못하여 손주를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생불할망을 찾아가 비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별상은 자손을 봐야하는 할아버지로서 인간 존재의 삶과 병행한다.

18) 본고에서 말하는 자원의 ‘개별성’(個別性)은 자원의 ‘다양성’(多樣性)과 ‘개체성’(個體性)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였다.



<마누라본풀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원의 개별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면서 신화의 보편 주제인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를 중첩하여 다루고 있다. 곧 생산신으로서의 여성신과 질병을 주는 신인 대별상의 대립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남과 여, 인간 삶으로서의 생과 사가 떼어 낼 수 없는 관계처럼 공존하고 있음을 은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생(生)과 사(死)는 남성과 여성의 공존과는 조금 다른 문제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에는 선택의 상황에서 그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거의 누구나 죽음보다 삶을 선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누라본풀이>에서는 이 문제를 인간의 무조건적인 생에 대한 선호를 근거로 삼아 선불리 삶을 우위에 두지 않는다. 대별상으로 대표되는 질병과 죽음은 결말에서 보듯이 여전히 생불할망으로 대표되는 삶과 공존하고 협력한다. 생불할망이 대별상의 사과와 속죄로 인하여 승자가 되는 것은 그러한 공존과 협력에 바탕한 것이다. 대별상의 힘이 생불할망의 힘보다 보잘 것 없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가 퍼뜨리는 질병이 절대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그려지지 않은 것은, 그러한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힘을 발휘하려면 '생과 삶이 이미 전제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마누라본풀이>는 아무도 어찌할 수 없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의 선후'와 '생에 의지'로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비유하자면, 질병은 질병이 발현될 수 있는 생명체로서의 숙주를 필요로 한다. 그러하기에 누군가가 아프다는 것은 이전에 그가 건강했음을 전제하며, '죽었다'는 사건은 이전에 '살아 있었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남성이라도 그는 여성인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났으며, <마누라본풀이>에서처럼 무서운 마마신인 대별상도 자손을 얻으려면(생의 활동을 하려면), 생명을 관장하는 생불할망의 영역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생불할망과 대별상의 갈등은 삶과 질병, 생과 사의 대립을 상징한다. 결국 대별상이 아내와 자식을 살리기 위해 생불할망에게 굴복

함으로써 생(生)이 우위에 서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다양한 자원들이 활용되는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자원의 활용을 우선으로 둘 것인가, 혹은 무엇을 가진 자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근본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이것과 저것 중에 어느 것을 고를지 고민한다. 어느 것이 나에게 더 필요할지, 어떤 기술이 더 편할지, 어떤 정책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지, 어떤 정치인이 더 좋은 지도자가 될지와 같은 고민들은 한마디로 ‘어떤 자원을 활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대별상의 마지막 선택처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자원, 기술, 정책, 사람 등)이, 이러한 선택이, 이러한 행동이 우리를, 인간을 살리는 길인가?’이다. 처음의 대별상처럼 자신의 이익과 안위, 혹은 명예를 위하여 가진 것을 남용한다면 결국 곰보 얼굴이 된 어린이들과 생불할망의 원한만이 남을 뿐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자원의 활용은 다른 이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생불할망과 대별상이 결말에 나누는 대화는 자원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가진 자들이 명심해야 할 메시지가 담겨있다.

“할마님 과연 잘못 허엿수덴.” 허난 그때엔, 할마님이 간, 그 아기 포태된 건 해산시견 녹지난(눅히니), 흥진국 대별상은 손지 낫젠 허난 손지, 얼굴 보젠 각 보난, 아깃보 아니 헤싼(펼쳐서), 그냥 보차 난 잇이난,  
“아이고 이게 어땡헌 일입네까 할마님아”

“야, 너도 너 즈순 얼굴 보고프냐? 나도 나 즈순 옛 얼굴 보구장 허덴.” 허난

“아이구 할마님아 과연 잘못 허엿수다, 더 메꾸아보쿠덴(마마로 얹어진 얼굴을 메워준다는 뜻).”.....할마님은 은그셀(은가위를) 내어 놓안, 콧주둥이 툇허게 건드려 주악허게 건드리난, 머리받은 물 잘락 씨더지명(물이 급하게 왓각 쏟아지며) 옥동자가 솟아난다.<sup>19)</sup>

19) 허남춘 외,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85-86쪽.

...할마님이 대별상<sup>2)</sup>라 말을 흐뵈  
“그만흐난 하늘 노프고 땅 노자운(낮은) 줄 알겠느냐? 뛰는 제주가  
종당허여도 노는 제주가 싯젠 허여라.”  
“예, 과연 잘못허엿수다.”<sup>20)</sup>

위의 대화는 적법한 자격으로 신이 되어 통치권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곧 순리에 따라 획득한 자원을 자기 뜻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원을 활용하는 주체 간의 겸손과 타협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대화에서 나타나듯이, 내가 가진 자원(능력)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다른 자원들을 소유하고 운용하는 주체들이 실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망 속에서, 그리고 나의 목적 안에서 그들과의 충돌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마누라본풀이>는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자원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더불어 첫 번째 대화에서 생불할망이 대별상에게 하는, ‘네가 네 자손의 얼굴을 보고 싶듯이, 나도 내가 접지한 자손들의 옛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말은 자원을 활용하여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역지사지(易地思之)와 공감(共感)의 미덕을 제시한다. 내가 그것이 갖고 싶다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갖고 싶어하고, 내가 그것을 상실하여 슬프다면 다른 사람도 자신이 잃은 것에 슬픔을 느낄 수 있음을 아는 것, 그러므로 각자 가진 것에 관련하여 그 나름의 가치와 그 소유자를 존중하고, 그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타협해야 한다는 것이 <마누라본풀이>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자원 분배와 활용에 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

20) 현용준(2007), 앞의 책, 106쪽(안사인 구송본).

### 3. 일월조정 화소를 통해 본 공공 자원의 문제 해결 양상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나는 일월조정 화소는 2장 1절에 제시된 서사 단락으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논의에 앞서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소별왕과 대별왕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하늘까지 뽀은 박씨 줄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으나 갑자기 ‘두 개씩 뜬 해와 달’ 때문에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낮에는 타 죽고 밤에는 얼어 죽는 재앙이 생긴다. 대별왕이 이를 알고 천 근의 활과 백 근의 화살로 뒤에 오는 해와 달을 쏘서 각각 동해와 서해에 떨어뜨려 인간 세상을 안정시켰다.<sup>21)</sup>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경쟁 화소를 바탕으로 일월조정 화소를 본다면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적인 금기를 하나 유추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한 곳에 둘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일정한 하나의 시공간에 같은 것들이 존재할 경우 경쟁은 불가피하다’. 사실 이 원칙은 생태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다. “같은 장소에 동종 개체가 많이 모여 살게 되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sup>22)</sup>며, “공존이 가능할 정도가 되면 경쟁의 강도가 약해진다”<sup>23)</sup>는 원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이 자신의 생존 환경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이치다. 앞서 본풀이에서도 보았듯이 이승법을 두 왕이 함께 차지할 수 없고, 생불할 땅에 두 여성신이 함께 들어설 수 없으며, 같은 시간, 같은 곳(몸)에 대

21) “인간데레 월광 둘이 비추고 일광 둘이 비추와 인간 백성 살 수가 엇어지니 천 근 활 백근 활을 둘러받아 앞의 오는 햇님 하나 생겨근 뒤에오는 햇님 하나 마쳐다가 동이와당 진도받제 시겨두고, 앞의 오는 달 하나 생겨두고 뒤엿 둘은 마쳐단 서이와당 진도받제 시겨근, 그 법으로 헤는 하나 동방으로 뜨오옴고 둘은 하나 서방으로 지는 법, 법지법을 마련하여 두고,” 현용준(2007), 앞의 책, 43-44 쪽.

22) 이성규, 『신비한 식물의 세계: 식물에서 삶의 지혜를 얻다』, 서울:대원사, 2016, 180쪽.

23) 위의 책, 같은 쪽.

립되는 두 신의 힘이 미칠 수 없다.<sup>24)</sup> 마찬가지로 낮에 해가 두 개 뜰 수 없으며, 밤에 달이 두 개 뜰 수 없다. 그러나 본풀이의 일월조정 화소에는 낮과 밤에 해와 달이 각각 두 개씩 뜨는 일이 생긴다. 모종의 금기가 깨지고 질서가 무너진 상황이다.

경쟁 화소에서 인물들이 획득해야 할 자원이었던 신직은 공동 소유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원 소유자 간의 동시적인 자원 활용권도 불가능하다. 즉 그것은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배제원칙이 적용되는 '사유재'(私有財)라고 할 수 있다. 배제원칙(exclusion principle)이란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으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소비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이다.<sup>25)</sup> 그러나 일월조정 화소에서 문제가 되는 해와 달은 소유자가 없다.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자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해와 달은 공공재(公共財)<sup>26)</sup> 혹은 공공 자원의 성격을 지닌다. 공공재는 사유재와 달리,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으며(비배제성의 법칙), 소비하기 위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비경쟁성). 우리가 해와 달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낼 필요는 없으며, 서로 더 많이 쓰겠다고 경쟁할 일도 없는 것이다. 특별히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데도 모든 사람들은 해와 달이 주는 혜택에서

24) 예를 들면, 대별상이 어떤 아이에게 마마를 줄 때에 생불할망은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즉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 반면 생불할망이 한 아이를 잉태시키고 해산시킬 때에는 대별상이 그 시간에 개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탄생 이후에 질병이 오는 것처럼 시간의 절대적인 선후 문제도 있지만, 마마를 앓고 난 뒤에야 두창에 대한 면역이 생기므로 생불할망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무조건 마마를 막을 수도 없다.

25) 박은태, 『경제학사전』, 서울:경연사, 2001, 123쪽.

26) 공공재란 사유재(private goods)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사유재와는 달리 그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 메카니즘에 의한 공급은 불가능하고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의 정치적 과정(political process)을 통해서만 공급될 수 있는 성질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면 경찰, 국방, 소방, 공원, 도로, 교육 등은 공공재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위의 책, 123쪽.

소외되지 않는다. 일월조정 화소에서 자원으로 비유되는 해와 달은 지금까지 살펴본 경쟁 화소에서 나타나는 자원의 성격과는 정반대의 자질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천지왕본풀이>의 일월조정 화소는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공공 자원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동아시아 신화의 일월조정담에는 해와 달이 두 개 이상의 수로 더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해와 달이 없어져서 그것을 구해오는 경우도 있다.<sup>27)</sup> 이야기에서 해와 달의 수가 많아지든 부족한 상황이 되든, ‘과잉’과 ‘과소’는 모두 공공 자원의 양이나 크기가 균형을 잃어 자원으로서는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해와 달이 여러 개가 나타나는 것을 부족 사회에 존재했던 경쟁 세력의 출현이라고 해석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공권력의 과잉 상태를 뜻한다. 사회를 조직하고 다스리는 힘의 원천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여러 세력에 의하여 위협받는다든 점에서 사람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역설적인 것은 이렇게 필요한 자원이라고 할지라도 필요 이상으로 많

27) 중국 신화에서 뛰어난 공수였던 예(羿)가 열 개의 태양과 열 개의 달이 나타났을 때 활과 화살로 해들과 달들을 쏘아 없앤 이야기(『淮南子』, <本經編> - 위안커 지음, 전인초, 김선자 옮김, 『중국신화전설』, 서울:민음사, 2002, 435-449쪽 참조)를 비롯하여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 신화에는 그 배경과 해결책은 조금씩 다르지만 해와 달이 2개 이상 나타나는 상황들이 종종 발견된다(박연옥 편, 『중국의 소수민족 설화』, 서울:학민사, 1994. 참조). 또한 만주, 동몽골 지역에는 ‘메르겐’(활을 잘 쏘는 사람을 가리킴)이 하늘에 뜬 여러 개의 해와 달을 쏘아 없애는 이야기가 있으며, 타이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김선자, 『제주 신화, 신화의 섬을 넘어서다』, 제주:북길드, 2018, 32쪽 참조). 이와 달리 해와 달이 없어져서 그것들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는 많지 않지만 에스키모(李福淸, 『射日神話比較研究- 以臺灣布農族神話爲主』, 『東亞文化』 31,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93, 64쪽 참조), 만주(김재용·이종주, 『동북아 창세신화 <천궁대전>』, 『왜 우리 신화인가』, 서울:동아시아, 1999, 353-355쪽 참조), 아이누(崔元午 編譯, 『大傳』, 『아이누의 구비서사시』, 서울:역락, 2000, 327-335쪽 참조)와 같은 지역에서 전승된다.

아지면 인간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제주도 본풀이에는 서로 소유하려고 경쟁하는 자원(사유재)의 분배 문제와 더불어, 아무도 소유하지 못하지만 누구나 똑같이 그것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 자원을 두고 생기는 문제 상황을 함께 그리고 있다. 경쟁 화소에서 비유하는 사유재와 관련한 다양한 갈등들, 곧 자원 소유의 방법이나 당위성, 소유권자들의 우위 다툼 등은 마치 무질서하고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승 세계를 조감하면서, 우리가 공존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덕목을 제시한다. 이에 비하여 일월조정 화소에서 비유하는 공공 자원의 문제 상황은 대별왕의 저승법처럼 명명백백하고, 단호하게 해결된다. 이런저런 고민없이 대별왕은 활과 화살로 필요한 자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것들을 가차없이 쏘아 제거한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넘치는 것들을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지도자의 결단은 그렇게 인간 백성들을 다시 살린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두 개씩 뜬 해와 달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환경 문제와 맞닿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는 이미 이상 기후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심해지는 한여름 폭염과 한겨울 혹한은 이야기에서 해와 달이 두 개씩 나타나 '낮원 뉘난(낮이 되니) 천 명이 죽어(뜨거워, 타서) 죽어가고 밤원 뉘난 만 명이 굶어(일어서 굶어) 일어 살려 죽어가난'<sup>28)</sup>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더불어 대기류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홍수와 가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까지 지구상의 인간은 공공 자원으로써 공유하는 자연 환경의 과소나 과잉 상태로 고통받고 있다. 이야기 속의 공공 자원으로써 해와 달이, 지구에서 사는 인간 모두가 벗어날 수 없는 조건이자, 필수적인 자원이라는 점에서 현대에 우리는 <천지왕본풀이>의 기적적인 일월조정담을 환경 문제에 적용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연 재난만큼은 이야기에서나 현실에서나 사람들이 쉽게 해결할 수 없고, 생존에 직결되는 비상 상태이기 때문이다.

28) 허남춘 외,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74쪽.

환경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초래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는 필요한 자원이 ‘과소’인 상태, 곧 어떤 것이 고갈되어서 인간이 생존에 활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식량 부족, 연료 부족 등이 그러하다.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이 ‘과잉’인 상태로, 생태계의 한 종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천적 관계가 균형을 잃는다든지, 산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순물들이 과잉 상태가 되어 토양, 물, 대기를 오염시키는 경우이다. 현대 사회는 주로 후자의 상황으로 인하여 환경 문제를 겪고 있는 듯하지만,<sup>29)</sup> 사실 이러한 환경 오염은 자원의 과소와 과잉 상태에 인과적·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석탄과 석유를 과도하게 채취하여 사용하면 그 자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공하고 사용하면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불순물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오염된 물이나 대기는 기후 변화를 일으켜 가뭄과 홍수, 폭염과 혹한과 같은 물과 대기열의 과소 및 과잉 상태를 초래하며, 결국에는 인간 생존이 위협받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기후 변화가 생태계의 몇몇 종을 멸종시키기까지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고리는 지구 안에서 생각보다 크고 넓게 걸쳐져 있으며 그 순환의 속도도 빠를 것이다.<sup>30)</sup>

한국과 더불어 전 세계는 그동안 경제 성장을 우선으로 정책을 편성해왔다. 그리고 성장은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팔아 돈으로 남기면서 달성된다. 만들어진 것들은 또 하나의 자원이 되어 계속해서 사람

29)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욕심이나 욕구가 과잉되어 이 모든 상황들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물질적 차원에서 과잉과 과소를 언급한 것은, 이 두 상황은 인간이 생산량과 생산율을 올리기 위해 수행된 모든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서로 사슬처럼 엮여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30) 배문규, 『해마다 바닷새 5000마리,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 먹고 죽는다』, 『경향신문』, 2019. 7. 22.

이 기사에서는 바닷새와 거북이 등의 해양 생물들의 사체를 조사해본 결과 그들의 뱃속에서 우리의 생활 쓰레기로 나오는 수많은 플라스틱 조각들과 비닐이 발견된 것을 알리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artid=201907220600045&code=610103#csidxa7a0cf1ec8e3d2db3b038deaeaf4f6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artid=201907220600045&code=610103#csidxa7a0cf1ec8e3d2db3b038deaeaf4f65)



들에게 획득과 경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대가없이 누려왔던 공공 자원으로 자연환경은 희생되어 왔다.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도 너무 많으면 위험하다는 것이 전 지구적인 환경 변화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 대별왕은 불필요하게 남는 것들을 과감히 버린다. 현실 세계의 우리는 대별왕과 같은 영웅을 기다릴 수 없다. <마누라 본풀이>에서처럼 자원 활용의 우선 순위를 고민한다면, 그리하여 그것이 결국 생과 삶이 아니라 질병과 죽음을 불러온다면, 그래서 인류의 삶에 재앙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포기할 필요가 있다. 대별왕이 남는 해와 달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웅이었기보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재빨리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원 소유와 활용에 있어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일월조정 화소가 현 시대에 주는 화두일 것이다.

#### 4. 결론

본풀이를 문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구술로 전승되어온 신화이다. 또한 그것을 제의와 민속적 관점에서 본다면 전승 집단의 신념과 신앙 체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말과 행위를 통하여 전승되어온 그 이야기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전승 집단으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로 인식되어 왔을 것이다. 그 메시지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자기가 섬겨야 할 신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도, 세계의 이미지일 수도, 혹은 자기 삶의 실질적인 행위 규약일 수도 있다. 필자는 제주도 본풀이가 누구에게 어떻게 해석되든 간에, 그것이 지금까지 말과 행위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전승되어왔다는 사실 그 자체로 그 자신의 체계성을 증명하고 있으며, 역사 안에서 전승 집단의 인간적 삶을 반영하고 다듬어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필자의 지난 연구의 연장선 상에서 제주

도 본풀이를 바라보고자 하였다. ‘제주도 본풀이가 형평성을 지향한다면, 자원을 두고 일어나는 경쟁의 상황과 분배 문제에서 형평성의 가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 질문은 이 연구의 시작점이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본풀이의 경쟁 및 일월조정 화소가 ‘정의’와 ‘형평’의 문제를 뜨겁게 논의하는 우리 사회에 ‘공존으로서의 균형’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천지왕본풀이>, <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의 경쟁 화소에서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끊임없이 ‘누가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지’, ‘누가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진 자가 우위에 설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에 당면한다. 소유와 분배에 있어 각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윤리 의식, 혹은 사회적 규율이 늘 상호 간에 정확히 합의될 수 없다는 현실은 안타깝다. 하지만 소별왕과 생불할망의 전혀 다른 선택과 행보를 보면서, 그리고 공존(共存)을 위한 선택으로 일월을 과감하게 조정하는 인물들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정의’와 ‘형평’이 결국에는 인간이 함께 번영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 자들의 세계로서 다양한 꿈과 욕망들이 어우러지는 현실 세계는 결코 소별왕들로는 유지될 수 없다. 자신의 과욕이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얻게 하거나 혹은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할지는 몰라도, 그러한 소유 자체가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들과 공유하는 자원의 균형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무한 경쟁과 무질서의 피로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자원의 과잉과 과소의 순환 고리를 보듯이 나의 소유는 타인의 상실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당장의 내 욕심에 집착하며 나만은 잘 살 수 있는 세계를 구축하는 것은 자기 과멸의 시간을 조금만 늦출 뿐 결국에는 공존의 시계를 멈춰버리게 만든다. 일월조정담에서 보듯이, 지금의 환경 문제를 ‘공공 자원의 균형 파괴’로 읽힐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이 세계를 사는 한 벗어날 수 없는 연대 관계에 늘 속해 있기 때문이다. 대별왕은 활과 화살로 필요 없는 해 하나와 달 하나를 가차없이 쏘아 없애버렸다. 지금 우리는

지나치게 풍요로운 것을 지향하고 있지 않은가? 지나치게 많이 만들고  
가짐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없애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  
지 신화는 단호하게 보여준다.

## 참고문헌

- 강소전,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적 의미」, 『탐라문화』 32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251-282쪽.
- 곽진석, 「시베리아 나나이족의 창조신화에 대한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23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449-482쪽.
- 권태효, 「‘일월회복신화소’의 자료적 양상과 신화적 의미」, 『한국무속학』 제28집, 한국무속학회, 2014, 185-214쪽.
- 김선자, 『제주 신화, 신화의 섬을 넘어서다』, 제주:북길드, 2018.
- 김재용·이종주, 『왜 우리 신화인가』, 서울:동아시아, 1999.
- 김현자, 『천자의 우주와 신화: 고대 중국의 태양 신앙』, 서울:민음사, 2013.
- 노성환, 「해와 달을 쏘는 신화의 의례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구비문학회, 2004, 219-238쪽.
- 박연옥 편, 『중국의 소수민족 설화』, 서울:학민사, 1994.
- 박은태, 『경제학사전』, 파주:경연사, 2001.
- 박종성, 「중·동부 유럽과 한국의 창세신화 그리고 변주」, 『비교민속학』 제35집, 비교민속학회, 2008, 541-572쪽.
- 신연우, 「한국 창세신화의 ‘속이기’ 모티프를 통한 트릭스터의 이해」, 『고전문학연구』 44권, 한국고전문학회, 2013, 102-129쪽.
- \_\_\_\_\_, 「제주도 초감제 신화와惡의 문제」, 『한국무속학』 제29집, 한국무속학회, 2014, 143-171쪽.
- \_\_\_\_\_,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 보이는 악(惡)에의 대응과 그 의의」, 『실천민속학연구』 제26호, 실천민속학연구, 2015, 69-94쪽.
- 이복청, 「射日神話比較研究 - 以臺灣布農族神話爲主」, 『東亞文化』 31,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93, 53-78쪽.
- 이상규, 『신비한 식물의 세계: 식물에서 삶의 지혜를 얻다』, 서울:대원사,

2016.

이주영, 『어스다이버(earth-diver) 유형을 통해 본 창세신화 인세차지 경쟁 화소의 신화적 의미』, 『우리문학연구』 제39집, 우리문화회, 2013, 143-174쪽.

전주희, 『제주도 본풀이의 세계관과 에토스 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정충권, 『동아시아 일월조정신화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2, 355-395쪽.

최원오 편역, 『아이누의 구비서사시』, 서울:역락, 2000.

허남준 외,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서울:보고사, 2009.

\_\_\_\_\_, 『서순실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서울:보고사, 2015.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제주:각, 2007.

위엔커(袁珂), 『중국신화전설』, 전인초·김선자 옮김, 서울:민음사, 2002.

클리퍼드 기어츠(C. Geertz), 문옥표 옮김, 『문화의 해석』, 서울:까치, 1998.

\* 인터넷 기사

배문규, 『해마다 바닷새 5000마리,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 먹고 죽는다』, 『경향신문』, 2019. 7.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20600045&code=610103#csidxa7a0cf1ec8e3d2db3b038deaeaf4f6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20600045&code=610103#csidxa7a0cf1ec8e3d2db3b038deaeaf4f65)

<Abstract>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appeared in the Rivalry motifs  
and Adjusting numbers of Sun and Moon  
motifs in Jeju island Bonpuri

Jeon, Ju-Hee\*

This study attempts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the Rivalry motifs and the Adjusting numbers of Sun and Moon motifs appeared in Jeju island myths. Especially, I focused on the myths <Chonjiwang-bonpuri>, <Halmang-bonpuri> and <Manura-bonpuri> that have the above motifs. The Rivalry motifs are found in the competitions between agents to get a certain God's status or to gain the upper hand. The competition of getting a certain God's status means that people want to take something like resources and the competition of gaining the upper hand means the conflicts for their leadership between people. That is, these situations are metaphors for the various conditions of human society where occurred with an acquisition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Firstly, I discuss 'Who can get the better thing?' in chapter 2 section 1 focusing on <Chonjiwang-bonpuri>. And I show the reason why 'this world' is better than 'the next world', then I prove that these worlds' features are related to the acts of agents in the story.

---

\* Sogang University.

Secondly, I argue that 'Who can get the thing?' in chapter 2 section 2 with <Halmang-bonpuri>. Here, the competition of agents is zoomed in o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of the resource owner' than 'the worth of resource' which they want to get. Therefore, the problem of the unjust distribution of resources in <Chonjiwang-bonpuri> is solved properly in <Halmang-bonpuri>. But <Halmang-bonpuri> also emphasizes the necessity for coexistence, bringing up a problem of an unavoidable imbalance to be generated although the resources are distributed reasonably to each agents in <Halmang-bonpuri>. Thirdly, I discuss 'What the one who has can occupy the upper?' in chapter 2 section 3 focusing on <Manura-bonpuri>. Here, the conflict between god and goddess who each has opposite function means competition between the resource owners who have different purposes in human society. And the process of their reconciliation shows what kind of virtues should we consider for the solution of the conflict.

Meanwhile, 'the Adjusting numbers of Sun and Moon motifs' in <Chonjiwang-bonpuri> implies excessive situation of resources. The sun and moon mean a kind of 'public goods' which can't be objects of acquisition and do not have a rivalry and excludability of private goods as general resources. Although 'public goods' do not belong to anyone, they can benefit everyone. So ironically, it is difficult to solve it promptly when a problem occurs using them. And 'The Adjusting numbers of Sun and Moon motifs' of bonpuri can be interpreted newly because it suggests an issue about our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in the excessive and lacking situation of resources. Finally these motifs of the stories show the important of balance for our coexistence.

Key Words : Jeju Bonpuri, <Chonjiwang-bonpuri>, <Halmang-bonpuri>, <Manura-bonpuri>, the Rivalry motifs, the Adjusting numbers of Sun and Moon motifs, resource, distribution of resources, public goods, environmental problems, coexistence, balance

■ 논문접수 : 2019년 10월 29일

■ 심사완료 : 2019년 12월 8일

■ 게재확정 : 2019년 12월 10일